

초중고 4월 개학 “다행인데, 지친다”

교육부, 2주 추가 연기
유치원 포함 4월 6일로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더 연기했다. 또 오는 19일 새벽 0시부터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 <관련기사 2·7면>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22일까지 예정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내달 5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개학 연기 발표는 이번이 세번째로 개학이 총 5주가 연기되는 것이다. 앞서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늦춘데 이어 23일까지 2주 더 늦춘 바 있다.
교육부는 사·도 교육청과 학교에 “개학 연기 4~5주차에 휴업하는 일수인 열흘을 법정 수업일수(초중고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줄어드는 수업일수에 비해해 수업시수(아수단위)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수단위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일수가 줄면 하루 수업량이 증가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우려를 덜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변동에

따라 '4차 개학 연기'를 하거나, 역으로 3월 말에 다시 개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4월 6일 전에 개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치고, 감염증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개학 시기와 방식 등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능 등 올해 대입 일정은 고교 개학 연기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변경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대입일정과 관련해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 원을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사·도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 이날 정부는 현행 아시아 5개국(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란)과 유럽발 항공노선 전체에 적용됐던 특별입국절차를 19일부터 전 세계로 확대해 모든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역유입 사례가 적지 않았던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정부 결정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입국장에서 일대일로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이석형 후보 금품 살포 의혹도 조사



“엄마, 학교 문은 언제 열어요?” 17일 오후 광주 동구 서석초등학교에 올해 입학할 아들 어린이와 부모가 1학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압수수색 이어 선관위까지 나서 ... “부끄러운 경선”
“민주당 광산갑 후보자격 박탈하라” 시민단체·대학생 성명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석형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선관위위원회가 이 후보 측의 금품살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의 ‘자격박탈’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타지역에서 선관위의 검찰 고찰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에 공식 보고했으며 최고위원회가 18일 광산갑 문제를 재논의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타지역에서 선관위의 검찰 고찰이 이뤄진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했지만, 동일 사안인 광산갑 이 후보에게는 자격을 부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민주당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제보한 A씨에 대해 조사를 했다. A씨는 “(광산갑 경선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에 광산구 한 건물에서 이석형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B씨가 건넨 30만원 중 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지인 4명과 함께 B씨를 만났고, B씨가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를 위해 전화가 오면 받아 이석형을 도와달라’는 권유와 함께 30만원을 줬고, 일행 중 4명은 5만원씩, 지인 1명은 10만원을 각각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석형 캠프 관계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 “B씨는 선거사무실에 나와서 회의에 참석하고 도와주는 사람이며, 확인결과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품살포 의혹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2020광주시민행동’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석형 후보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산갑 당원 100여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 오태화 대학생위원장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에서 광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관위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거쳐 이 후보의 금품살포 의혹 관련 보고서를 이날 오후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이 후보의 경선 과정의 잦은 불법 행위와 검찰 조사의 엄중함 등의 내용이 담겼고, 당원들의 집단 탈당 등 성난 표심에 대한 분석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대로 광산갑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어떤 식으로도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18일 회고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광산갑 문제는 광주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며 “대중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도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광산구 이석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사무실, 선거캠프 관계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이석형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이석형 예비후보는 최근 민주당 광산갑 경선에서 이용민 예비후보를 꺾었지만 이용민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고, 이용민 예비후보의 재심은 기각됐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의...“특단의 대책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신속히 결정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의 상황은 금융분야의 위기에서 비롯됐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내놓을 경제분야 대책의 강도가 이제까지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차 추경”, “재난기본소득” 등의 논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경제적 충격은 훨씬 크고 장기화할 수 있다. 미중유류의 비상경제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경제가 심각히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비상경제회의의 가장 방침을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충선 누기뛰나-광주 서구을·복구를 ▶3면

광주 민주노총-한국노총 세력싸움 ▶6면

빼앗긴 그리운데 봄은 언제 오나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0년 광주콘텐츠산업육성 지원 사업

2020년 광주게임 전국화, 세계화로!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사업

- 지원 1. 실감형게임 프로젝트 제작지원**
 - 내용: 광주게임기업으로 VR/AR/MR 등 실감형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 규모: 5억 4천만 원 (3개사, 기업별 180,000천원)
 - 공고: 2020년 3월
- 지원 2. 시장창출형게임 프로젝트 제작지원**
 - 내용: 광주게임기업으로 PC,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 규모: 3억 6천만 원 (4개사, 기업별 80,000~100,000천원)
 - 공고: 2020년 3월
- 지원 3. 도심어드벤처 테마파크 프로젝트 제작지원**
 - 내용: 광주지역 관광 거점 중 5G 서비스와 연계하고 가상테마파크로 게임서비스가 가능한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 규모: 4억원 (2개사, 기업별 200,000천원)
 - 공고: 2020년 3월
- 지원 4. 인디스타즈 5기 모집**
 - 내용: 광주지역 게임산업생태계 구축 및 창업 유도를 위한 인디게임 개발지원
 - 규모: 6천만원 (7개 프로젝트팀 총28인, 개인지원가능)
 - 공고: 2020년 3월
- 지원 5. 광주글로벌게임센터 입주 공간 지원**
 - 내용: 광주게임기업창업 초기단계 안정화를 위한 입주 공간 지원
 - 규모: 6개사 (전일빌딩6층, 심사 후 관리비 전액지원)
 - 공고: 2020년 3월

문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개발팀(062-610-2461) / www.git.or.kr

첨단실감사업팀 사업

- 1.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조성**
 - 목적: 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미래 핵심 성장동력 산업인 콘텐츠산업 거점 기반 구축
 - 규모: 부지 17,533㎡(연면적 20,335㎡(지하층/지상9층)) [이허용] 활용스튜디오, 입주공간, 레지던트(실숙소), 식당 [외우용] 첨단실감콘텐츠(VR/AR) 체험시설, 교육장, UHD시사실, UHD스튜디오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53-1
 - 준공: 2021년 하반기
- 2. 투자진흥지구 프리즘245 콘텐츠 제작지원**
 - 목적: 투자진흥지구 지역콘텐츠 홍보 및 실감콘텐츠 제작 역량지원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 활성화
 - 규모: 5억원 (기업부담금 10%이상, 5개사 내외)
 - 공고: 2020년 6월
- 3. 투자진흥지구 인터넷 데이터 센터 및 SW 클린존 운영**
 - 목적: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 대상: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및 광주지역 입주기업 [DC] 통신 1Gbps, 보안, 서버환경, CPU 8C, 메모리 64GB, 스토리지 1TB VMware Linux, 고장IP 등 제공 [SW] 마하, 맥스, 모션빌더 등 3D 저작 도구 지원
 - 공고: 2020년 4월 이후 수시접수
- 4. 광주저작권서비스센터**
 - 대상: 광주지역 1인 창조·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 지원: [상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저작권(일반, 법률 및 제도 안내 등) 상담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분야별 전문가와 11 매칭 [SW컨설팅] 기업별 SW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방향 등 컨설팅 및 교육 [육성지원] 지식재산권 (특허, 인종 등) 창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 공고: 수시접수 (육성지원사업 3월중 모집공고)

문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첨단실감사업팀 (062-610-2421) / www.git.or.kr